

민주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경쟁 치열

18곳 중 6곳 확정...9일부터 서류심사·면접 등 18일 마무리 '광산 을' 3파전·'고흥·보성·장흥·강진' 4파전 ... 경선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까지 지역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18곳의 지역위원회 가운데 단수로 확정되지 않은 곳의 결과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18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지역위원장 선임을 확정된 곳은 현역 국회의원과 단수 신청 지역구를 중심으로 광주 서구(송갑석)와 북구(이형석), 전남의 목포(우기종), 나주·화순(신정훈),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영암·무안·신안(서삼석) 등 6개 지역구다. 나머지 1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실사와 심사, 면접,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대부분의 지역구는 전직 지역위원장, 전직 단체장 등 유력 주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중앙당 심사 등을 거쳐 경선 없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구는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팽팽하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에선 광산 을이 뜨겁다. 민행배 전 광산구청장과 박시중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이 격돌하고 있다. 여기에 윤난실 전 시의원도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결국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 동남 갑과 동남 을, 광산 갑, 북구 갑, 서구 을 지역도 복수 후보 지역구지만 유력 주자들 중심으로 세 차이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명분과 심사 결과없이 지역위원장을 단수로 선임할 경우, 상당한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은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순천, 해

남·진도·완도가 관심 지역이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승남·신문식 전 의원과 박병중·김성 전 군수의 팽팽한 4자 구도가 형성됐다.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순천은 서갑원·김광진 전 의원의 대결 구도다. 서 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완승에 공이 크지만 최근 모

학 총장으로 가게 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완도·진도는 윤재갑 전 해군군사령관이 단수 지원했으나 중앙당에서 지역위원장 선임을 보류,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여수 갑은 주철현 전 시장의 지역위원장 도전 결과가 관심사다. 여수 을과 광양·곡성·구례는 뚜렷한 유력주자 없이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6일까지 지역위원회 현장 실

사에 마치고 9일 서류심사, 10~11일 면접을 진행한다. 이어 결과에 따라 경선 없이 지역위원장을 선임하거나 경선을 실시, 오는 18일 지역위원장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광산 을이, 전남에서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대 관심 지역"이라며 "후보 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 경선을 실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교향청 외무장관 환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폴 리처드 갤러거 외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습 안되는 한국당 내분

친박·잔류파 김무성 탈당 요구... 10~11일 의총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당 내분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3주가 지나도록 당 수습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 잔류파 대 복당파 등으로 갈려 상대방 공격에만 전념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친박계·잔류파 의원들은 지난 4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의 탈당을 대대적으로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당내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가 갈등 폭발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심재철 의원 등 소속 의원 14명은 김성태 대표관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친박계·잔류파 의원들이 김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들 의원은 또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 등 당 운영 방향을 두

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행은 "비대위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의총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비대위 준비위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가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5~6배수로 압축하는 오는 10~11일에는 의총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갈등의 고비는 전국위원회가 될 수 있다.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해 또다시 계파 간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포함해 1000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김대행이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과 간담회를 연 것도 전국위를 앞둔 사전 정치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안철수 "당 대표 출마설은 소설"

바른미래 구의원 출마자 위로 오찬... "조만간 거취 표명"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설에 대해 "고려해 본 적 없다"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 아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6·13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당대표 출마설을 제기한) 원작자를 찾아 가장 소설을 잘 쓴 분에게 문학상을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지역 구청장과 사·구의원 출마자, 캠프 관계자와 당직자 등을 만

나 감사의 뜻을 표해온 안 전 의원은 이날로 '위로 식사'를 마무리하고, 거취 고민을 위한 장고에 들어간다.

안 전 의원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가까운 시일 내에 (거취 표명을 위한) 자리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보완책으로 "현재 2주와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친문' 계파 논란에 '부영이 모임' 해산 선언

전재수 "전대 맞물려 오해 낳아"... 이해찬, 출마설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부영이 모임'이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대)를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자 일단 해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대 이후에 모임의 성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영이 모임 회원인 전재수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밥 그만 먹자" 이라면 끝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다"며 "추후에 연구모임으로 갈지, 이것조차도 전당대

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부영이 모임의 점심 회동과 관련,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대해 자기 의견을 한마디씩 했던 것"이라며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기사화되고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들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간사 역할을 한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뭔가 의도되고 목적이 있는 모임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까지 오해를 무릅쓰고 모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그동안 대선 경선에서 고생했던 의원들 간 밥 먹는 자리였는데 그마저도 그만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영이 모임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차기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이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출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은 '출마하느냐', '다른 후보와의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의원의 출마 여부는 최재성(4선)·김진표(4선)·전해철(재선) 의원의 출마, 친문진영 후보 단일화 등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전해철 의원은 의총 후 자신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며 "(이해찬·김진표·최재성 의원 등) 당대표에 나갈 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다음 주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공식 출마선언을 한 박범계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출마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안정관리형 대 혁신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완주 의지를 보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68.9%

리얼미터, 예멘 난민 수용 반대 53%·찬성 37%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68.9%로 지난 주보다 2.6% 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2% 포인트 내린 47.4%로 3주째 하락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

(57.0%)보다 10% 포인트가량 급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3% 포인트 오른 19.2%로 3주째 상승했고, 정의당은 0.3% 포인트 상승한 9.7%로 6주째 강세를 이어갔다.

한편,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선 반대가 53%, 찬성이 37%로 나타났다. 지난 달 21일과 비교해 반대는 4.3% 포인트 늘고 찬성은 1.6% 포인트 줄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

